

# 순천제일고, 생태체험과 인문학 토크 콘서트로 특별한 하루

### 학생 400여명 지역기업의 기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체험해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의 저자 김제동 작가와 토크 콘서트 관람

순천제일고등학교는 지역기업 (주)대경의 입장권 기부를 받아 1·2학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어서 14:30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의 저자 방송인 김제동씨와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학생들은 오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정원회 박람회 전시를 보면서 생태환경과 인간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국가정원 옆에 위치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김제동 작가

와 만나 인문학 토크콘서트 강연에 참여했다. 방송인인 김제동 작가는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의 공동 저자로서 (물리학, 건축학, 천문학, 경제학, 뇌과학, 환경, 대중문화 등의 전문가 7인과의 인터뷰를 쉽게 풀어낸 책)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전문분야는 물론 학생들의 공부와 진로, 생활 속의 고민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면서 웃음을 주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특별한 배움의 하루를 가진 한 학생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으며 체험 기회를 준 기업에 감사하다'

고 했고, 인문학 강연을 준비한 선생님들 '많은 학생들에게 사전 독서를 시키는 게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질문지와 다른 질문까지 하며 작가와 직접 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순천제일고는 작년부터 개설 중인 공동교육과정 「생태와 환경」 과목을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순천대 환경교육과,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제일고가 함께 협업하여 「기후변화와 순천만」이라는 과목으로 발전시켜 교과서를 개발하여, 올해 2학기부터는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지역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로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신안 하의초, '우리 고장 환경보호 클린하이킹'

신안 하의초등학교는 지난 20일 학생회 주관으로 우리 고장 환경보호 클린하이킹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3개 두레로 나누어 모래구미해수욕장, 양세바위, 오류제를 중심으로 바다와 산,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였는데 올해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하의면사무소, 웅곡선작장, 하나로마트 주변을 대상 장소로 선정하여 쓰레기 줍기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치원부터 6학년 학생까지 전교생 39명은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한 팀, 4학년부터 6학년을 한 팀으로 편성하여 미리 준비한 환경보호 피켓을 들고 환경보호 구호를 외치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였다. 도로 주변을 이동하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 하의파출소(파출소장 고승복)에서 협조해 주셔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의면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친 후 전교생은 하의면사무소에서 집결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하의지역 주민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학생회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는데, 교내에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환경보호 플래카드 문구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플래카드를 자체 디자인하여 학생들이 주도하는 환경보호 클린하이킹이 되었다.

하의면사무소에서 전체가 모여 캠페인 활동을 하였는데 조영일 면장도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조영일 면장은 "하의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니 면장으로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하의면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하의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론이 아닌 실천하는 환경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신안=이명주기자

## 고흥 금산초,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지구의 날 행사 운영

### 학교 인근 쓰레기 주우며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나서

고흥 금산초등학교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구의 날 행사 주간으로 지정하여 지구의 날 캠페인 및 퀴즈 활동, 플로깅, 지구의 날 빙고 미션 등 다양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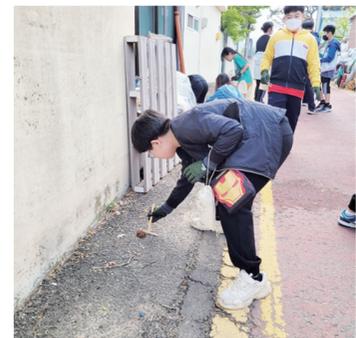
금산초 학생회 임원들이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주제로 금산초 학생들에게 제53회 지구의 날을 홍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 및 실천 방법을 알려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구의 날 행사를 기획하였다.

19일 아침 활동 시간에는 각 학급을 방문하

여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학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는 지구사랑 배지를 제공하였다.

20일 아침 활동 시간에는 학생회 임원들이 '플로깅' 활동을 하였다. 금산초등학교부터 금산면사무소까지 학교 인근 쓰레기를 주우며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제철중, 학생 생명존중캠페인 "내 이름을 불러줘" 실시

### 학생들의 마음 건강 및 적응력 향상 위해 마련



광양제철중학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및 적응력 향상을 위

해 학생 생명존중 캠페인 "내 이름을 불러줘"를 진행하였다.

광양제철중학교에서는 1학기 학생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생 및 학부모, 학생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생명존중 캠페인은 4월 19일(수) 아침 등교시간에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1,2학년 포레상담자, 학생자치회 학생

들이 함께 마인드업 힘이 되는 문구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내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침 등교길 활기찬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인형탈을 쓰고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와 친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이름,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